



산업동향

www.kcca.or.kr

- 240여개 대학·연구기관, 중소기업 기술역량 제고에 올인
- 5월 신설법인 4,029개로 평년수준 유지
- 중소기업, 녹색기술·사업에 희망을 걸다
- '09년 1/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동향



6:1의 경쟁률 뚫고 지원대상 중소기업
1,473개 업선

240여개 대학·연구기관, 중소기업 기술역량 제고에 올인

▣ 중소기업청(청장 홍석우)은 전국 245개 대학·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할 1,473개 중소기업*를 선정하고 소요되는 비용 1,340억원(국비 977억원, 지방비 363억원)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
* 연계형과제 : 2년간 5억원, 국제 및 선도과제 : 2년간 4억원, 일반과제 : 1년간 1억원, 부설연구소 설치 : 3년간 5억원, 부설연구소 업그레이드 : 2년간 5억원, 산학협력실 : 2년간 2억원 한도

* 선정대상은 온라인종합관리시스템

(<http://sanhak.smba.go.kr>)에서 확인 가능

○ 특히,

① 중소기업 참여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는 점,

②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 을 우대 배정한 점,

③ 전국 각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 대학·연구 기관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.

▣ 금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과제의 질적 수준 을 제고하는 등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되고, 성과검증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관심이 폭증하여 지난해 4.2:1 수준의 경쟁률이 6:1로 큰 폭으로 높아져 개발 과제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.

* 선도과제 11:1, 국제과제 4:1, 연계형과제 21:1, 일반과제 3:1, 부설연구소 업그레이드 22:1, 부설연구소 설치 4:1, 산학협력실 2:1

○ ‘06년 중앙대학교와 공동으로 “Noise Radar” 를 이용한 과속차량 탐지시스템 기술개발”에 성공 하여, ‘07년 매출 480억원을 달성해 회사성장의 기반이 된 서울 소재 (주)엠티아이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R&D 능력이 우수한 대학교수·연구원들을 회사 직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하면서,

○ ‘09년에도 중앙대학교 및 우크라이나 IRE NASU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“Stepped Frequence Random Noise를 이용한 고분해능 UWB Radar 개발” 국제과제에 참여하여 중견기업 수준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.

○ 또한 ‘07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의 산학협력 결과물인 “다운자켓용 PET 세섬 기능성 Down-proof 경량직물”을 양산·판매에 성공, ‘08년에는 나이키 등에 납품하는 등 143억원의 매출성과를 이룩하고 대구광역시 스타기업에 선정된 대구 소재 (주) 보광도

- 금년에 섬유개발연구원과 또 다시 “차세대 다운 방한용 경량직물에 적합한 세섬사 마이크로 NP분 할 소재개발”을 위해 의지를 다지고 있다.

* 보광 매출액(억원) : ('06) 80 → ('07) 85 → ('08) 143

▣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도 363억원이 출연됨과 아울러, 비수도권 지역에 전체 예산의 60% 수준(586억원)을 배정한 것도 금번 사업의 특징이다.

* 매칭비율(국비 : 지방비)은 수도권 1.6:1, 비수도권 1.8:1로 비수도권 우대

○ 또한, 산학사업의 주관기관인 서울대 등 대학 및 연구기관도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에 발 벗고 나서기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.

○ 금년도에는 1,473개 과제개발을 위해 전국 217개 대학 1,400명의 교수와 28개 연구기관 530명의 연구원이 참여

- 자신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접목할 예정이다.

□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형 R&D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,

* 중소기업의 개방형 R&D 참여의사(‘07.11, 산학연전국협의회) : 69.0%

○ 중소기업들의 요구수요를 충분히 분석하여 지원예산 확대, 대학·연구기관-중소기업간 기술연계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제조·건설업은 증가, 서비스업은 다소 감소

5월 신설법인 4,029개로 평년수준 유지

□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『2009년 5월 신설법인동향』에 따르면 5월 신설법인은 4,029개로 전년동월대비로 2.0%(84개), 전월비로는 20.0%(1,009개) 각각 감소

* 전년동월대비 : (‘08.12)△10.6→(‘09.1)△30.8→(2)10.4→(3)△2.3→(4)5.2→(5)△2.0

* 전월대비 : (‘08.12)14.0→(‘09.1)△3.5→(2)15.4→(3)8.0→(4)10.4→(5)△20.0

○ 이는 기저효과*와 조업일수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

* 17개 시도별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로 올해 4월에 5,038개로 최고치를 기록

* 4월신설법인(평균 4,575개) :

(‘03)4,912→(‘04)4,108→(‘05)4,546→(‘06)4,056→(‘07)4,576→(‘08)4,790→(‘09)5,038

* 5월신설법인(평균 4,140개) :

(‘03)4,193→(‘04)3,622→(‘05)4,497→(‘06)4,020→(‘07)4,511→(‘08)4,113→(‘09)4,029

□ ‘09.5월 신설법인동향에 따르면,

○ (업종별) 전월비로는 전업종에서 감소하였으며, 전년동월비로는 제조업(26.4%)과 건설업(12.6%)은 증가하였으나, 서비스업(△11.9%)은 감소

* 전월대비(전년동월대비) 증감률 :

- 제조업 :

(‘09.2)11.5%↑(36.3%↑)⇒(3)12.2%↑(33.1%↑)
⇒(4)9.4%↑(28.8%↑)⇒(5)18.4%↓(26.4%↑)

- 건설업 :

(‘09.2)24.1%↑(21.5%↑)⇒(3)5.3%↓(4.4%↓)⇒(4)3.1%↑(6.7%↓)⇒(5)14.8%↓(12.6%↑)

- 서비스업 :

(‘09.2)14.8%↑(0.2%↓)⇒(3)10.5%↑(11.0%↓)
⇒(4)12.3%↑(0.5%↑)⇒(5)21.6%↓(11.9%↓)

○ (지역별) 전월비로 4월에 부진을 보였던 강원과 충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감소하였으며, 전년동월비로는 충북, 대구 등 9개 시도는 증가하였으나 서울, 경기 등 8개 시도가 감소

- 서울, 부산 등 8대도시 비중은 56.6%로 전월에 비하여 1.9%p 감소하였으며, 수도권 비중은 58.3%로 전월비 2.5p% 감소

* 8대도시 비중(%) : (‘08.5)57.5→(1~5)57.4→(‘09.4)58.5→(5)56.6→(1~5)56.5

* 수도권 비중(%) : (‘08.5)60.9→(1~5)60.9→(‘09.4)60.8→(5)58.3→(1~5)59.3

- (연령대별) 전월비로는 전연령층에서 감소하였으며, 전년동월대비로는 30대(△6.7%)와 40대(△4.0%)가 감소
- (성별) 전월비로는 모두 감소하였으며, 전년동월비로는 여성(4.0%)은 증가하였으나 남성(△3.5%)은 감소
- (자본금규모별) 전월대비로는 5억초과~10억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감소하였으며, 전년동월비로는 1억초과는 1.7% 증가하였으나 1억이하는 2.8% 감소

■ 녹색중소기업 지정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

중소기업, 녹색기술·사업에 희망을 걸다

- 중소기업청(청장 흥석우)은 내년도 녹색중소기업 지정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 5월 (주)리서치&리서치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녹색기술개발과 녹색산업으로의 진출 의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.
- 지난해 8. 15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발표한 아래, 녹색성장 미래전략,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, 녹색기술개발 종합대책 등 녹색성장 지원계획 발표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녹색중소기업 지정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,
 - (참여의향) 지정제도 참여의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, 참여 이유로는 녹색경영 측면(15.7%)

보다 녹색기술, 녹색사업 진출 등 사업적인 측면(60.1%)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

* 특히 벤처/이노비즈 보유기업이 ISO14000 인증 보유 기업보다 녹색중소기업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○ (참여시기) 지정제도 참여시기는 당장 참여가 54.1%, 지원혜택을 보고난 뒤 결정이 42.2%로 응답업체 대다수가 참여의지를 나타냄

* 참여분야로는 녹색기술중소기업이 74.3%, 녹색경영중소기업이 25.7%로 나타나 녹색산업으로의 진출의향이 강하게 나타남

○ (지원혜택) 지정기업에 대한 지원혜택으로는 금융지원이 41.6%, 판로지원이 24.1%, 세제지원이 15.2%, R&D지원이 15.2% 순으로 나타남

○ (지정분야) 지정분야는 녹색기술중소기업이 74.3%, 녹색경영중소기업이 25.7%로 나타남 (자유 : 조사대상에 기술혁신형기업이 다수 차지)

○ (지원시기) 지정업체에 대한 지원시기는 지정준비단계(17.2%)보다 지정이후 각종 우대지원(79.2%)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

○ (녹색화 분야) 녹색화 가능부분은 녹색기술연구개발이 38.5%, 친환경기술 활용 공정개선이 29.4%, 신재생에너지 활용 공정개선이 15.8%, 에너지고효율 공정개선이 11.8%로 나타남

- 공정과 사업장의 녹색화를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곳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태양광, 태양열이 45.7%를 차지하고, 에너지고효율 분야에는 조명기기와 전기기기가 73.1%를 차지함

□ 녹색중소기업 지정제도 도입은 지난 3월 발표한 「녹색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전략」 '5대 실천과제' 중 하나로 세부추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「녹색성장 5개년 계획」(녹색성장위원회 총괄)에도 반영되도록 협의 중에 있다.

□ 중소기업청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녹색환경규제 시대를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녹색 대응력을 높이는 그린팩토리 촉진운동 등 녹색경영 확산지원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
제조업노동생산성 증가율 8.7% 감소, 단위노동비용 14.4% 상승

'09년 1/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동향

□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'09년 1/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전년동기대비 8.7% 줄어 2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나, 지난 4/4분기(-11.5%)보다는 줄어든 폭이 완화되었다고 발표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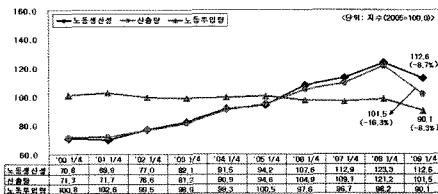
○ 이는 전년동기대비 노동투입량이 8.3% 줄었으나, 산출(산업생산) 측면에서는 정부소비(7.3%) 및 건설투자(1.6%) 증가에도 불구하고, 설비투자(-23.5%), 민간소비(-4.4%), 수출(-14.1%) 등의 부진이 확대되면서 제조업 산출량(산업생산)이 더 크게 줄어든데 기인 (전년 동기대비 - 16.3%)

- 노동투입량을 구성하는 근로자수와 근로시간은 각각 1.9%, 6.5% 줄어, 노동투입의 감소 폭 확대 (전년 동기 대비 - 8.3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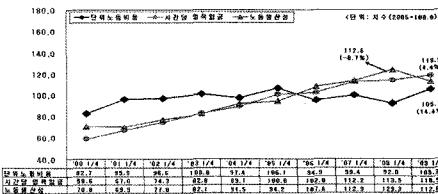
* 제조업 노동생산성 통계는 매분기별로 발표하는 통계청 지정통계(제34401호)로서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해 오고 있음 (상세내용 KPC 생산성연구소 : 724-1053)

○ '09년 1/4분기 부문별 노동생산성은 IT부문(-9.7%)/비IT부문(-7.2%), 대기업(-10.6%)/중소기업(-9.0%), 중화학공업(-8.5%)/경공업(-5.9%) 등으

연도별 1/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추이



연도별 1/4분기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추이



로 IT부문, 중화학공업, 대기업의 생산성이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, 경기침체에 따른 충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

○ 업종별로는 제조업 22개 업종중 담배(15.1%), 기타운송장비(14.4%), 비금속광물제품(4.2%), 코크스석유정제품(2.4%) 등 4개(전년동기 16개) 업종을 제외한 18개 업종에서 노동생산성 하락

□ '09년 1/4분기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(시간당 명목임금/노동생산성)은 전년동기대비 14.4% 상승하여, 지난 4/4분기(6.2%)에 이어 비용경쟁력의 약화 지속

○ 이는 전년동기대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8.7% 줄어든데다, 시간당 명목임금은 전년동기대비 4.4% 상승한데 기인

○ 나아가 제조업의 생산활동 위축으로 초과근로 시간(-20.3%)이 줄어들면서 초과급여(-9.5%) 및 특별급여(-10.2%)도 감소해, 명목임금의 하락(-2.4%)을 주도

참고1**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 산출 개요****1. 목적**

- 제조업 및 제조업의 산업중분류별 노동생산성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산업정책 수립 및 기업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 제공

2. 경과

- ▣ 주요 연혁
 - 1964년 : 노동생산성지수 측정 시작(분기별)
 - 1976년 : 노동생산성지수 국가지정통계 승인(통계청)
 - 2003년 : 기준년도를 2000년으로 개편
 - 2008년 : 기준년도를 2005년으로 개편
 - ▣ 분석주기 및 공표
 - 측정주기(공표) : 분기별 (분기 · 연도별)
 - 지식경제부 및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게재 「생산성리뷰」 분기별 통계보고서 별간

3. 측정산식 : 산출량지수/노동투입량지수

- ▣ 분석대상 기초통계
 - 노동투입량(근로자×근로시간) : 노동부「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」
 - 산출량(산업생산지수) : 통계청「광공업동태조사」
- ▣ 분석 대상 및 내용
 - 노동투입량 :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업체 중 7,208개 표본사업체
 - 산출량 : 633개 품목 (2005년 총생산액의 1/5,000 이상 품목)
 - 중분류 업종별 분석 : 25개 업종 (제조업 22, 광업 3)
 - 부문별 분석 : 대기업/중소기업, IT부문/비IT 부문, 중화학공업/경공업

참고2**제조업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동향****제조업 노동생산성**

- ▣ '09년 1/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112.6(2005=100.0)으로 전년동기대비 8.7% 줄어 2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나, 지난 4/4분기(-11.5%)보다는 줄어든 폭이 완화
- ▣ 이는 전년동기대비 노동투입량이 8.3% 줄었으나, 산출량(산업생산) 측면에서는 정부소비(7.3%) 및 건설투자(1.6%) 증가에도 불구하고, 설비투자(-23.5%), 민간소비(-4.4%), 수출(-14.1%) 등의 부진이 확대되면서 제조업 산출량(산업생산)이 전년동기대비 16.3% 감소로 더 크게 줄어든데 기인

○ 노동투입량(-8.3%)을 구성하는 근로자수와 근로시간은 각각 1.9%, 6.5% 줄어, 노동투입의 감소 폭 확대

○ '09년 1/4분기 제조업의 산출량(산업생산)은 기타운송장비(26.1%), 담배(14.4%), 코크스석유정제품(3.4%) 등 3개 업종을 제외한 19개 업종에서 줄었으며,

* 제조업 산출량(산업생산) 증가율(-16.3%)에 대한 업종별 산출기여도는 기타운송장비(0.73%p), 코크스석유정제품(0.10%p), 담배(0.07%p) 등 3개 업종을 제외한 19개 업종에서 (-) 기여도 보임

제조업 노동생산성 추이														
	'00	'01	'02	'03	'04	'05	'06	'07	'08p	'08p			'09p	
	1/4	2/4	3/4	4/4	1/4					1/4	2/4	3/4	4/4	
노동생산성	72.3 (9.1)	71.3 (-1.3)	79.6 (11.7)	84.7 (6.4)	92.7 (9.4)	100.0	111.5 (11.5)	118.6 (6.4)	120.4 (1.5)	123.3 (9.2)	126.1 (8.9)	121.5 (1.1)	110.8 (-11.5)	112.6 (-8.7)
산출량 (산업생산)	74.6 (17.1)	74.8 (0.2)	80.9 (8.1)	85.2 (5.3)	94.2 (10.5)	100.0	108.6 (8.6)	116.2 (7.0)	119.6 (2.9)	121.2 (11.0)	126.1 (9.2)	119.5 (5.5)	111.6 (-12.0)	101.5 (-16.3)
노동투입량	103.2 (7.3)	104.9 (1.6)	101.6 (-3.2)	100.6 (-1.0)	101.6 (1.0)	100.0 (-1.6)	97.4 (-2.6)	98.0 (0.6)	99.3 (1.4)	98.2 (1.6)	100.0 (0.3)	98.4 (4.4)	100.7 (-0.5)	90.1 (-8.3)
근로자수	98.2 (8.7)	101.9 (3.7)	99.7 (-2.1)	99.0 (-0.7)	100.5 (1.5)	100.0 (-0.5)	100.6 (0.6)	101.8 (1.2)	101.5 (-0.3)	100.8 (-0.8)	101.2 (-0.6)	101.9 (0.2)	102.0 (0.0)	98.9 (-1.9)
근로시간	105.1 (-1.3)	103.0 (-2.1)	101.8 (-1.1)	101.6 (-0.2)	101.1 (-0.4)	100.0 (-1.1)	96.9 (-3.1)	96.2 (-0.6)	96.2 (-0.6)	97.5 (2.4)	98.8 (0.8)	96.5 (4.2)	98.7 (-0.5)	91.1 (-6.5)

* 노동생산성지수 : 산출량지수/노동투입량지수

* 산출량지수 : 제조업 산업생산지수(통계청자료)

* 노동투입량지수 : 근로자수×근로시간(노동부자료)을 지수화

* ()는 전년 또는 전년(동기)대비 증가율, 각 지수는 2005=100.0을 기준으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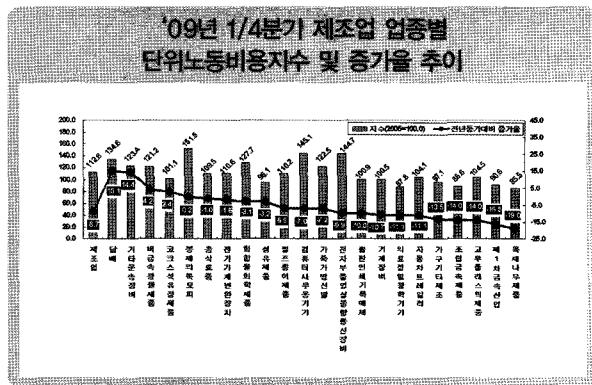
○ '09년 1/4분기 제조업 노동투입량(-8.3%)은 기타운송장비(10.2%), 코크스석유정제품(1.0%), 가구기타제조(0.9%), 의료정밀광학기기(0.1%) 등 4개 업종을 제외한 18개 업종에서 줄어든 가운데, 근로자수는 16개 업종, 근로시간은 19개 업종에서 감소

- 부문별로는 대기업(0.2%)을 제외한 5개 부문*에서 근로자수가 줄었으며, 근로시간은 6개 전부문에서 감소

* 부문 : IT부문/비IT부문, 대기업/중소기업, 중화학공업/경공업

□ '09년 1/4분기 부문별 노동생산성은 IT부문(-9.7%)/비IT부문(-7.2%), 대기업(-10.6%)/중소기업(-9.0%), 중화학공업(-8.5%)/경공업(-5.9%) 등으로 나타나, 예년과 달리 IT부문, 중화학공업, 대기업의 생산성이 더 크게 하락

제조업 부문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및 격차 추이				
		제조업	중화학/경공업(%) 격차(%p)	IT/비IT(%) 격차(%p)
'07년	6.4	6.5/4.4 (2.1%p)	19.1/3.6 (15.5%p)	9.6/7.9 (1.7%p)
'08년	1.5	2.4/0.3 (2.1%p)	1.7/1.5 (0.2%p)	-0.5/0.6 (1.1%p)
'08년	1분기	9.2	12.0/2.4 (9.6%p)	31.8/4.1 (27.7%p)
	2분기	8.9	10.8/3.2 (7.6%p)	18.2/5.7 (12.5%p)
	3분기	1.4	2.4/-2.1 (4.5%p)	0.4/1.1 (0.7%p)
	4분기	-11.5	-13.2/-2.0 (11.2%p)	-30.6/-4.4 (26.2%p)
'09년	1분기	-8.7	-8.5/-5.9 (2.6%p)	-9.7/-7.2 (2.5%p)
				-10.6/-9.0 (1.6%p)



□ 업종별로는 제조업 22개 업종 중 담배(15.1%), 기타운송장비(14.4%), 비금속광물(4.2%), 코크스석유제제품(2.4%) 등 4개(전년동기 16개) 업종을 제외한 18개 업종에서 노동생산성이 하락

○ 노동생산성 감소 상위 5개 업종

- ① 목재나무제품(-19.0%)
- ② 제1차 금속산업(-16.5%)
- ③ 고무플라스틱제품(-14.0%)
- ④ 조립금속제품(-14.0%)
- ⑤ 가구기타제조(-13.5%)

제조업 단위노동비용

□ '09년 1/4분기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(시간당 명목임금/노동생산성)은 105.3(2005=100.0)으로 전년동기대비 14.4% 상승하여, 지난 4/4분기(6.2%)에 이어 비용경쟁력의 약화 지속

○ 이는 전년동기대비 노동생산성이 8.7% 줄어든데다, 시간당 명목임금이 전년동기대비 4.4% 상승한데 기인

* 단위노동비용은 기업의 비용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, 단위노동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비용경쟁력의 약화를 의미

- 시간당 명목임금(1인당 명목임금/총근로시간)의 상승(4.4%)은 1인당 명목임금이 전년동기대비 2.4% 줄고, 근로시간도 6.5% 줄어든데 기인

○ 나아가 제조업의 생산활동 위축으로 초과근로시간(-20.3%)이 줄어들면서 초과급여(-9.5%) 및 특별급여(-10.2%)도 감소해, 명목임금의 하락(-2.4%)을 주도

제조업 단위노동비용지수 및 증가율 추이

	'00	'01	'02	'03	'04	'05	'06	'07	'08p	'08p				'09p 1/4	
										1/4	2/4	3/4	4/4		
제조업	단위노동비용	86.4 (0.8)	94.6 (9.5)	95.9 (1.4)	98.2 (2.4)	98.7 (0.5)	100.0 (1.3)	96.1 (-3.9)	97.7 (1.7)	95.5 (-2.3)	92.0 (-7.5)	88.2 (-3.1)	99.6 (-3.9)	103.2 (6.2)	105.3 (14.4)
	시간당 명목임금	62.4 (10.1)	67.5 (8.1)	76.4 (13.2)	83.2 (8.9)	91.5 (10.0)	100.0 (9.3)	107.2 (7.2)	115.9 (8.1)	115.0 (-0.8)	113.5 (1.1)	111.2 (5.6)	121.0 (-2.8)	114.3 (-0.8)	118.5 (4.4)
	노동생산성	72.3 (9.1)	71.3 (-1.3)	79.6 (11.7)	84.7 (6.4)	92.7 (9.4)	100.0 (7.9)	111.5 (11.5)	18.6 (6.4)	120.4 (1.5)	123.3 (9.2)	126.1 (8.9)	121.5 (1.1)	110.8 (-11.5)	112.6 (-8.7)

* 단위노동비용지수 : 시간당 명목임금지수/노동생산성지수

* 시간당 명목임금지수 : 명목임금/총근로시간을 지수화

* 노동생산성지수 : 산출량지수/노동투입량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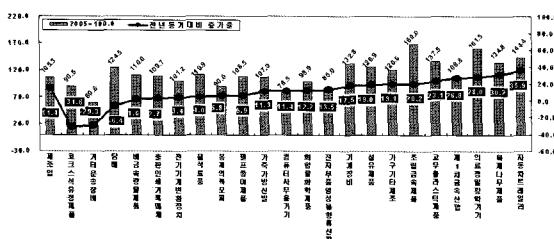
* ()는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, 각 지수는 2005년=100.0 기준임

- ‘09년 1/4분기 부문별 단위노동비용은 IT부문(13.4%)/비IT부문(12.4%), 대기업(16.1%)/중소기업(13.1%), 중화학공업(13.5%)/경공업(11.1%) 등으로

나타나, 예년과 달리 IT부문, 중화학공업, 대기업의 단위노동비용이 더 크게 상승

제조업의 부문별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및 격차 추이					
	제조업	IT/비IT(%) 격차(%p)	중화학/경공업(%) 격차(%p)	대기업/중소기업(%) 격차(%p)	
‘07년	1.7	-16.0/5.3 (21.3%p)	12.4/5.3 (2.9%p)	-2.1/3.7 (5.8%p)	
‘08년	-2.3	13.2/2.0 (11.2%p)	-1.3/1.6 (2.9%p)	0.7/0.1 (0.6%p)	
‘08년	1분기	-7.5	-11.4/1.2 (12.6%p)	-7.5/3.0 (10.5%p)	-7.6/0.6 (8.2%p)
‘08년	2분기	-3.1	10.9/-0.4 (11.3%p)	-4.1/-0.2 (3.9%p)	3.3/2.5 (5.8%p)
‘08년	3분기	-3.9	9.1/1.8 (7.3%p)	-2.9/3.2 (6.1%p)	0.7/1.4 (2.1%p)
‘08년	4분기	6.2	49.9/5.3 (44.6%p)	10.1/0.3 (9.8%p)	16.5/5.6 (10.9%p)
‘09년	1분기	14.4	13.4/12.4 (1.0%p)	13.5/11.1 (2.4%p)	16.1/13.1 (3.0%p)

‘09년 1/4분기 제조업 업종별 단위노동비용지수 및 증가율 추이



- 업종별로는 제조업 22개 업종 중 코크스석유정제품(-31.6%), 기타운송장비(-29.3%), 담배(-6.4%) 등 3개(전년동기 12개) 업종을 제외한 19개 업종에서 단위노동비용 상승

- 단위노동비용 상승 상위 5개 업종
 - 자동차트레일러(35.9%)
 - 목재나무제품(30.2%)
 - 의료정밀광학기기(28.0%)
 - 제1차 금속산업(26.8%)
 - 고무플라스틱제품(23.1%)

‘09년 1/4분기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산출량(산업생산)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라 근로자수, 근로시간, 임금 등 직·간접적인 노동투입량의 동시적 감소를 통해 생산성의 추가적 하락이 완화된 반면,

○ 큰 폭의 근로시간 감소는 시간당 명목임금(4.4%)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, 전년동기대비 단위노동비용이 크게 상승

- 부문별로는 예년과 달리 IT부문, 중화학공업, 대기업 등의 생산성이 더 크게 줄었으며, 단위노동비용은 더 크게 상승해, 부문간 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의 상대적 비교우위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,

- 업종별로는 22개 업종 중 4개(전년동기 16개) 업종의 생산성이 늘어나고, 3개(전년동기 12개) 업종의 단위노동비용이 하락하는데 그침